

02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어떻게 읽나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성적표 읽는 법	3
03 등급을 볼 때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등급보다 먼저 볼 칸** — 평균 · 표준편차 · 성취도 · 수강자 수
- ◆ 「A인데 3등급」과 「B인데 1등급」 —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 ◆ **1등급이 10%** — 9등급제 값과 헷갈리기 쉬운 자리
- ◆ 성적표를 받은 날 하실 일과 **물어보실 세 마디**

01 · 먼저 사실부터

견줄 것이 없는 첫 시험

고1 첫 중간고사는 한 해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성적표입니다. 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성적과는 모인 아이가 다르고, 앞으로의 성적과는 아직 견줄 것이 없습니다.

이 시험으로	알 수 있나
우리 아이 위치	대충은
3년 내신의 방향	아직 아닙니다
공부 방식이 통하는가	여기가 핵심
어느 과목이 문제인가	보입니다

셋째 줄이 첫 시험의 진짜 쓸모입니다. 등수보다 「어떻게 준비했고 그게 통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은 회복이 됩니다. 남은 학기가 다섯입니다. 한 번의 시험이 3년을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교육부 성적 산출 기준(2026년 8월 기준). 학교마다 시험 방식과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02 · 성적표 읽는 법

등급보다 먼저 볼 것

내신 성적표에는 한 과목마다 숫자가 여럿입니다. 어느 칸을 보느냐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칸	무엇을 말하나	먼저 볼까
원점수	내가 받은 점수	아니오
과목 평균	우리 학교가 어땠나	예
표준편차	얼마나 벌어져 있나	예
성취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예
석차등급	남과 견줘 어디쯤	나중에

원점수와 평균을 함께 보십시오. 원점수 70점이 평균 50점인 시험에서 나온 것과 평균 80점인 시험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준편차가 크면 학생들이 넓게 흩어진 것이고, 작으면 다들 비슷하게 본 것입니다.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한두 문제로 등급이 크게 갈립니다.

성취도와 등급을 함께 보십시오

「A인데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들 잘한 과목입니다. 「B인데 1등급」도 나옵니다 — 다들 어려웠한 과목입니다.

두 경우의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은 내용은 아는데 경쟁에서 밀린 것이라 손덜 자리가 적고, 뒤는 경쟁에서는 앞섰지만 내용이 덜 채워진 것이라 다음 학년에서 그 자리가 드러납니다.

출처: 교육부 성적 산출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성적 표기 항목은 학년과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03 · 등급을 볼 때

수강자 수를 함께 보십시오

등급은 남과 견준 것이라 「몇 명 중에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이고 누적 비율이 이렇습니다.

등급	누적 비율	뜻
1	10%	상위 10%
2	34%	여기까지 누적
3	66%	//
4	90%	//

9등급제 값(1등급 4%)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은 1등급이 10%입니다.

수강자가 적으면

비율이 같아도 인원이 줄어듭니다. 수강자 20명이면 1등급이 두 명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처럼 수강자가 적은 과목은 등급이 튼니다. 성적표에서 수강자 수를 꼭 함께 보십시오.

이건 아이 탓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따로 다른 편(G2)에서 섬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의 성적 산출 기준. 2028 대입개편 확정안(교육부) 및 공개된 등급 산출 기준. 2025년 고1부터 적용.

04 · 그래서 무엇을

첫 시험 뒤에 하실 일

차례	무엇을	왜
1	며칠 두십시오	그날 저녁은 가장 아픈 날입니다
2	평균·표준편차와 함께 봅니다	등급만 보면 어긋납니다
3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가 첫 시험의 쓸모입니다
4	한 과목만 고쳐 봅니다	여러 개는 안 됩니다

3번에서 물으실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언제부터 준비했어?」, 「범위를 몇 번 봤어?」, 「모르는 건 어떻게 했어?」
 답을 들으시면 대개 원인이 보입니다. 성적표에는 안 나오는 것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첫 중간고사 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평균 과 함께 봤는가
- ☐ 표준편차 를 봤는가
- ☐ 성취도와 등급 을 함께 봤는가
- ☐ 수강자 수 를 봤는가
- ☐ 1등급이 10% 인 것을 아는가
- ☐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물어봤는가
- ☐ 범위를 다 봤는지 물어봤는가
- ☐ 고칠 것을 하나로 좁혔는가

일곱째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범위를 다 못 보고 시험을 본 아이가 첫 시험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계획의 문제이고 고치기 쉽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으신 날,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아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아픈 날입니다. 며칠 뒤에 성적표를 놓고 「어떻게 준비했어?」로 시작하십시오. 등수로 시작하면 대화가 거기서 끝나고, 방식으로 시작하면 거기서 시작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첫 중간고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첫 시험이 3년을 정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남은 학기가 다섯입니다.

다만 「잘 안 바뀐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첫 시험이 3년을 정한다」가 아니라 「첫 시험 뒤에 고치느냐가 3년을 정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학기마다 쌓이는 것이라 뒤로 갈수록 전체 평균을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일찍 고칠수록 값이 큼니다.

1학년 1학기가 가장 고치기 좋은 자리입니다.

Q. 시험 범위를 다 못 봤다고 합니다.

첫 시험에 가장 흔한 일이고, 가장 고치기 쉬운 일입니다.

중학교는 범위가 좁아 며칠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같은 방식으로 못 끝냅니다.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 계산 문제입니다.

고치는 법도 분명합니다 — 시험 몇 주 전부터 시작할지를 정하고, 범위를 날짜로 나눠 두는 것입니다.

다음 시험에서 한 번만 제대로 해 보면 아이가 스스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겪는 것이 고1 1학기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봅니다.

성적은 그다음에 따라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첫 시험은 등수가 아니라 방식을 보는 자리입니다. 평균·표준편차·수강자 수를 함께 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성적 산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시험 운영과 성적 표기가 다릅니다.